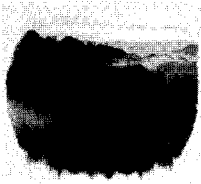




아담한 분위기 포근한 느낌의 “달빛동화마을”은 높지도 낮지도 않은 400여 미터의 진강산과 덕정산이 삼태처럼 둘러앉아 용천과 삼용천이 쉽 없이 흘러내려 달빛동화마을의 젖줄이 되고 수평선 같이 까마득한 왕금 들녘은 애마다 풍년되어 갯벌과 절새. 완상의 낙소는 피곤에 지친 도시민들의 마음까지 사로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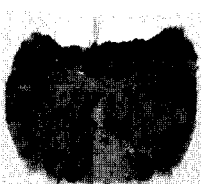
마을 환경

- 산 -



강화도 3대명산 진강산은 해발 466미터로 고려시대 효종의 애마 벌대총의 전설을 간직한 신비스런 명산으로 달빛동화마을에서 출발되는 등산로는 1시간 남짓, 정상에 닿을 수 있으며 가파르지 않아 노년층들에게 인기가 높고 정상까지 오르지 않는다면 가벼운 산책으로도 손색이 없다. 중간 중간에 쉼터와 응달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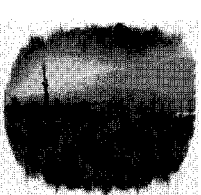
- 내 -



진강산에서 발원된 용천은 말 그대로 효종의 용마가 태어난 곳이다. 감수천이라고 부르는 용천 발원지는 연중 끊이지 않는 물줄기로 드넓은 곡창지대 장지포의 농수를 해결하는 젖줄이다.

전기가 없었던 50년대 마을사람들은 이곳에 수력 발전소를 건설 했다. 이름하여 “수차골” 이란곳에 독을 쌓아 발전기를 얹혀 보았지만 토목기술이 없던 옛날 큰 비에 그만 독이 무너져 시운전 몇 번 후 발전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80년대에 육전이 들어섰다.

- 돌 -



농업의 기본은 넓은 농토이다. 달빛동화마을은 수 백만 평방미터의 곡창지대인 장지포를 가지고 있다.

조상들이 바다를 막아 간척한 대단위 농지이지만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비가 오면 농지, 가물면 갯벌 그대로였다. 그래서 논에는 바다에서 살고 있는 게와 바다생물들이 함께 살았었다.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농지가 침수되어 흉년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후손들은 이 평야를 기름진 땅으로 만들기 위하여 제일 얇은 곳에 물을 담수하여 커다란 두레박으로 물을 끌어 올렸다. 그것을 바로 “용두레” 라고 한다.

동화 마을 이야기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강화도 작은 마을에 의좋은 오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누이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었지만 가난한 환경을 탓하지 않고 착하고 밝게 자라났습니다.

16살이 된 누나는 살림과 일을 도맡아 했고 15살이 된 남동생은 열심히 과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고 누나는 삼바느질에 남동생은 독서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타닥'하는 소리가 들려 등잔을 바라보니 기름이 다 떨어져가고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해서 동생 뒷바라지를 해주고 싶었는데...”

“밤늦게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누나 호강을 시켜주고 있었는데...”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두 사람은 동시에 안타까운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나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이라도 한 그릇 떠오마.”

우물가에 도착한 누나는 우물물을 길기 위해 우물 속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우물 속에는 밝은 보름달이 동실 떠있었습니다.

“달님이 참 밝기도 하지. 동생의 공부방에도 이런 달님이 하나 있으면 기름걱정 안 해도 될텐데...”

누나는 우물을 길어 표주박에 얹어담고 하늘에 간절이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우리 오누이를 도와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을 때 표주박에도 선명한 보름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물을 한 모금 마시자 몸과 마음이 맑아지고 근심이 깨끗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운을 차린 누나는 동생에게도 우물물을 나누어주려고 두 손으로 표주박을 받쳐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등잔불이 사그라져 희끄무레 어두워진 방에선 동생이 아직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얘야, 물 한 모금 마시려무나.”

누나는 동생에게 표주박을 건네주었습니다.

“아니!”

표주박을 받아 든 동생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왜 그러니? 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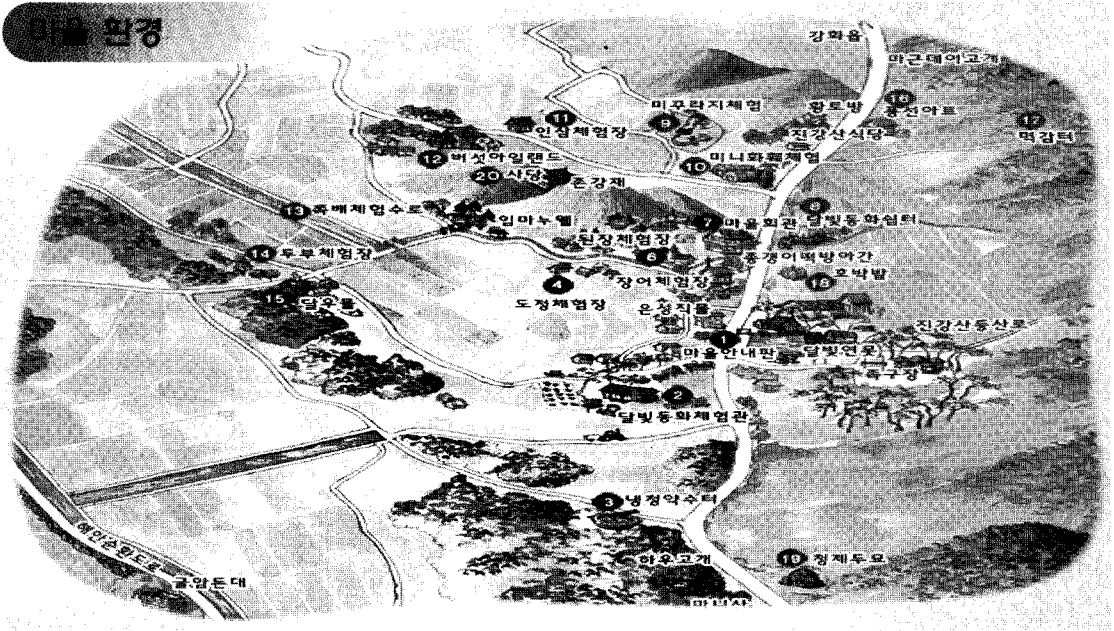
표주박 안을 들여다 본 누나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표주박 안에는 둥그런 달이 떠있는 게 아니겠어요?

게다가 그 둥근 달은 오누이가 자신을 발견한 것에 화답이라도 하듯 갑자기 환한 빛을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늘이 우리 오누이에게 선물을 주셨구나!”

표주박의 달은 그 날 이후로 언제나 오누이를 지켜주었고 오누이는 더욱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행사일정 및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moon.go2vil.org/>를 참조하면 된다.

달빛동화체험관

마을 안 쪽에 자리잡은 달빛동화 체험관에서는 달빛동화마을의 주테마인 청사초롱 만들기와 먹을거리 체험, 지렁이 농법을 이용한 친환경 텃밭가꾸기, 아이들 놀이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넓은 마당이 펼쳐져 있으며, 멀리 서해 바다가 한 눈에 보여 낙조 감상까지 할 수 있다.

달우물

달우물이라 이르는 것은, 우물은 우물이되 뚜껑을 해 덮지 않아 낮이면 해와 구름이, 밤이면 달과 별이 고이는 작은 우물을 말한다.

마을수로

마을을 가로 지르는 수로는 달빛동화마을의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로의 중요한 역할 담당하고 있다. 쪽배타기 체험장 이기도 하며,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어 자연 생태 학습장이 되기도 한다.

달빛연못

달빛동화마을의 얼굴이다. 모아이와 물래방아, 연꽃으로 수놓아진 아름다운 연못으로 달빛체험 후 연못에 초를 띄우며 소원을 빌어보자.

